

“광주 창업기업 혁신기술 체험하세요”



내달 11일까지 유스퀘어·시청 등서 시민 참여이벤트 AI·교통·헬스케어 등 창업기업 제품 체험 프로그램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시민참여 혁신기술 실증 체험 프로그램’이 내년 1월11일까지 운영된다. 홍보대행사인 ‘디딤나무네케이션’이 맡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인공지능(AI)·교통·헬스케어 등 창업기업의 제품을 피부로 느끼고 혁신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진다. 체험프로그램은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댄스챌린지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이벤트 △인플루언서 서포터즈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스탬프 투어는 도심 곳곳의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제품을 체험한 뒤 정보부(QR코드)를 스캔하면 스탬프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실증장소 및 제품은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쥬스페이스아이)의 AI가상 피팅 키오스크 △동구보건소(쥬스올스

프트)의 AI건강관리 앱 서비스 ‘제다’ 등이다. 서구에서는 △유스퀘어와 광주시청(쥬헬프티쳐의 AI기반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정류장(쥬레플러스의 에너지지열 스마트힐터) △지하철 상무역(쥬에스유아이씨티의 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시스템) 등서 체험이 가능하다. 남구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쥬오로웰즈의 삼반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서, 북구는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쥬라라랩스의 AI 우울증 분석 시스템) △인동 K하이테크 플랫폼(쥬텔퍼의 자가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등에 준비됐다. 참여 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실증공간을 무대로 활용한 댄스챌린지도 진행된다. 광주댄스팀인 ‘비기닝 댄스 크루’가 스탬프투어 주요 장소 5~6곳에서 동일한 무대를 촬영, 혁신기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영상을 제작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이벤트도 관심이다. 사실상 현장에서 혁신기술을 체험한 뒤 제미나, 지피터 등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실증 기술을 이미지로 표현해 참여할 수 있다. 광주 청년인플루언서와 서포터즈가 함께 현장을 체험하며, 생생한 후기를 담은 콘텐츠도 제작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0@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북광주농협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농산물 나눔을 통한 범농협 차원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해 ‘범농협 농심가득 사랑의 쌀 나눔사업’을 실시했다.

전남도, 친환경농업 확산 유기농자재 지원

전남도는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유기농업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와 자운영, 수단그라스, 헤어리베치, 녹비 보리,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 5종이다.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유기농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관행농업은 100만원 한도이며,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자운영·수단그라스 50kg,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 보리 140kg, 호밀 160kg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 자격은 유기, 무농약, 일반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농협 광주본부, ‘농심가득 사랑의 쌀 나눔사업’

빛찬들 쌀 10kg 152포 취약계층에 전달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북광주농협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농산물 나눔을 통한 범농협 차원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해 ‘범농협 농심가득 사랑의 쌀 나눔사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도 농산생국민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범농협 차원의 쌀 소비 촉진과 이웃사랑 실천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쌀 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

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광주본부와 북광주농협을 비롯해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 건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빛찬들 쌀 10kg 152포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GICON ‘콘텐츠기업인의 밤’ 열려

기업간 네트워킹·미래 전략 공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컨벤션홀에서 ‘2025 광주 콘텐츠기업 네트워킹 행사(광주 콘텐츠기업인의 밤)’를 열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와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을 비롯한 광주 지역 콘텐츠 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 간 네트워킹과 콘텐츠 산업의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는 이경주 원장의 인사말과 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 고미아 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콘텐츠 산업의 흐름과 미래 전략을 조망하는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오상민 로간벤처스(유) 대표는 ‘콘텐츠 산업 현황과 투자 트렌드’를 주제로 투자 환경 변화와 기업 성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페르소나AI 유승재 대표는 ‘퍼지컬 AI 트렌드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또 1등 21명...당첨금 각 13억7000만원

제12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8, 29, 35,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680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 4058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9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8만4823명이다.
--	--	--

